

어제 오후에 마신 커피로 밤새 잠을 설쳐 점심을 먹고나니 더 비몽사몽이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건지 알수없지만 어쨌던 잠들기 몇시간전 커피는 나를 힘들게 한다.

어제 내린 봄비로 오후 날씨는 맑고 깨끗하다. 올해는 유난히 봄비가 잦다. 최근의 날씨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특징들이 뚜렷하지 않고 뒤죽박죽 섞인 것 같다. 봄,가을이 짧고 여름,겨울은 길고. 10년뒤에 봄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좋아하는 매화꽃, 복숭아꽃을 볼수없는 것은 아니겠지 언제나 긴장해 있는 탓인지 봄꽃도 화창한날씨도 누릴 여유가 없다. 내년이면 오십줄에 들어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건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이 더 적을것인데.

사는게 비교적 편안하고 순탄했던 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장 후회되는 것은 두아들의 양육이다. 천성이 착하고 순한 아이들이라 말썽피워 학교에 한번 불려간적 없고 친구들이랑 싸워 걱정을 끼친적도 없다. 다만, 내가 조금더 너그럽고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이성적인 엄마였다면 지금 보다 더 성숙하고 멋지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로 자라지 않았을까

우리집 장남이자 장손인 창현이는 9월 중국대학 입학을 위해 중국어를 자칭 열심히 공부중이다. 엄마인 내가 보기엔 발등에 불떨어진 상황에서 너무 느긋하게 대처하는데 본인은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 이것이 나와 아들과의 생각차이고 이런 차이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큰아들은 태생이 느린 아이라 성격 급한 엄마를 만나 서로 갈등이 많았고 지금도 갈등중이다. 이제는 엄마말보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아이다.

생각해보면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내탓인데도 모든 문제를 아이에게 돌려 겁주고 강요하고 압박지르고 소위 엄마로서의 갑질을 한것같아 후회가 많다. 더 큰 문제는 후회하면서 반복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1인 우리집 차남 중현이와도 갈등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내게는 부모교육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내가 죽은후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기억해 줄까. 자신이 없다.

2015년 5월 12일 창현 • 중현엄마/한미정